

목회자칼럼

이효상 목사 // 한국교회 건강연구원 원장

솔직한 글쓰기와 한국교회 논객



사람은 솔직한 글과 말, 마음을 열고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말과 살아있는 글을 대하게 되면 굳게 닫아 놓은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솔직함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가슴 깊이 묻어두고 밖으로 마음껏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면서 마음에도 없는 입술의 언어로 걸만 번지르르하게 꾸며 낸다. 이것이 예의 바른다고 착각한다. 솔직한 말이 어떤 때 자신의 생각이나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버릇 없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벽을 넘어야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진 비밀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을 가슴에 깊이 묻어두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산다면, 교회공동체가 건강하게 미래로 나갈 수 없다.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모든 것, 모든 일을 사랑의 마음으로 살펴볼 줄 알게 하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혐오하고, 불쌍하고 보잘것없고, 작고,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 남에게 버림받은 것들을 사랑할 줄 알게 해야 한다. 더욱이 그들의 이름을 사랑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마치 예수님처럼 말이다.

세상에는 진정 아름다운 것도 많지만 겉으로만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많다. 겉은 번드르르하게 꾸며져 있어 남 보기엔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한 번쯤은 따져 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와 반대로 겉은 불꽃없어도 속은 아름답고 쓸모 있는 것도 많으니 그 또한 살펴보도록 할 일이다. 거룩함 속에 속된 것이 있고 속된 것 속에 거룩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세상사는 참으로 묘한 것들이 많다.

20여 년간 15권의 책을 출간하고 매주 칼럼을 쓰다 보니 간혹 이런 분들이 있다. 그냥 그렇게 아름답게 보

이도록 하면 될 것이지 굳이 써고 병든 것까지 들추고 파헤쳐 보여서 무얼 배우겠느냐고. 그렇게 걱정 아닌 걱정들을 주시곤 한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찍, 될 수 있는 대로 일찍 찾아내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썩은 원인을 여러 면에서 찾아보고 하고 그 원인에 따라 스스로 치료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려는 능력을 가진 것이 '교회'요, '개혁주의 신앙'이 아닐까.

가톨릭교회는 '교황'을 만들고 이단 사이비는 '교주'를 만들지만, 교황도 교주도 아닌 개혁신교회는 건강한 '목회자'를 세운다. 그런 가운데 목회자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 가면 쓰임 받게 된다. 이렇게 지라고 쫓아 제대로 사람 구실, 직분자로 사명 감당할 수 있다.

요즘처럼 가령 '연합기독교'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 버리고 존재감 제로라면 해체해야 한다'고 말하고 글을 쓰면 이익집단으로부터 온갖 비난을 각오해야 한다. 이렇게 솔직한 글을 쓴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다.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은 깨끗하다.

솔직한 글을 쓴다는 것은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가 죄나 요령이나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비보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렇지만 맘 흘리며 일할 줄 알고, 어려움을 이겨 낼 줄 알며,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 강하게 대항할 줄 알고, 그릇된 일을 비판하여 올바른 길을 찾을 줄도 안다. 또한, 보는 눈이 넓고 생각이 깊고, 앞서가서 멀리 내다볼 줄도 안다. 그것뿐 아니라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며 아름다운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있다.

꽤나 요령으로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눈앞의 이익에만 이두하여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하여 이렇다저렇다 하며 살아간다. 그러면서도 남의 괴로움

파위는 모르거나 알아도 모르는 척한다. 사실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척하지만 정말 어렵게 더불어 살아가 할 일에는 발뺌한다. 참되게 사는 맛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한국교회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다. 기쁜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답답한 일, 따져 볼 일, 의로움, 놀라움, 신비로움 등 수도 없이 많다. 신앙이나 인생은 매일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과도 같다. 그래서 끝까지 기본 사람만 이 시작을 알 수 있다. 듣는 이들이나 글을 읽는 사람 중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큰 위로가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처지에 있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처지를 잘 이해하게 되어 결국 모두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시성 있는 주제를 다루는 논객이 생각할 것은 시대 정신과 역사, 그리고 사람 등일 것이다. 이런 깊이와 나리사랑, 사명감의 말과 글로 사회와 소통하며 마음껏 풀어놓을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설교본의 한계를 뛰어 넘어야 한다. 한국교회의 논객, 즉 글쟁이들은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세상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마음의 눈을 크게 뜨도록 해야 한다.

솔직한 글쓰기를 통해 최근 집필한 '나이롱 집사와 기동같은 제자'라는 책은 한국교회와 직분자와 청지기들을 세우기 위해 다시 3·1운동을 시작한다는 관점에서 편에 편파와 교회를 향한 사랑을 짙어 썼다. 글 쓰는 재주가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며 쓰다가 죽을 뻔했지만 제 두 어깨는 교회를 향한 소명감으로 항상 무겁고, 제 가슴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 열정으로 뜨거웠다. 제 머리에는 온통 주님이 디자인하신 새로운 교회를 열어가길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었다.

명절에 쌓인 상한 감정 풀어냈어요!!

제 114차 이모션코칭 1단계 감정지우 세미나가 하이패밀리 주최(공동대표: 송길원, 김향숙)로 9월 20일(금)-21일(토)까지 양평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명절은 끝났다.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피곤한 몸과 명절 때 받은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후유증으로 남아 후속감정으로 이어진다.

처가·사대 후속감정이나 부부관계 파괴, 심지어 명절 우울증으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무작정 쉬기만 한다고 마음의 상처까지 회복되지는 않는다.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괜찮아지는 것도 아니다. 쌓여있는 섭섭함, 소외감, 억울함, 배신감, 분노 등의 상한 감정들이 마음에 쌓여있다면 독(毒)이 되어 강력한 독성을 가진 분노로 발전한다. 명절에 쌓여있는 상한 감정을 풀어내고, 씻어내

고, 흘러 보내며, 상한 감정들을 지우하는 마음 디톡스(Detox)는 명절후유증을 깨끗이 날려 보낼 최고의 선물이다.

본 과정은 언어를 통한 강의가 아닌, 몸을 통한 체험 위주로 진행되었다. 모션(motion)으로 이모션(emotion)으로 코칭하며 그 자리에서(now&here) 마음을 지우한다.

내용은 몸의 감수 벗기, 나도 모르는 내 안의 감정 만나기, 디톡스 호흡, 감정의 뱃 탈출하기, 핵심 감정: 회개와 용서 그리고 떠남, 감정축제로 구성되어 각 단계를 거치며 독성이 해독되며 마음은 맑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이 되어 관계가 풀리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온다.

이번 과정 체험을 통해 개인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 부부, 부모와 자식, 시누이와 율케 등이 함께 치

유와 회복이 있기를 소원한다. 031-772-3223. www.hifamily.org



신간안내

돌봄의 기술

내 상처가 뭘지 정확히 알고 돌보기 위한 59가지 행복문답



"나를 어떻게 돌보나요? 나 같은 사람도 치유되나요?" 힘든 과거 상처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부터 나를 돌보기로 선택하라! 남들에게 아무렇지 않은 일이 나에게겐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아니, 정말 많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에게도 들리고 싶지 않은 과거의 상처들이 있다.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을까? 과연 나 같은 사람도 치유될까? "이제 내 상처가 뭘지 정확히 알고 돌볼 때입니다." 자신도 치유되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나, 신앙, 공동체, 연애, 결혼, 부부'에 관한 59가지 문답 속에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나의 상처를 발견하고 해답을 얻도록 돕는다. 나와 닮은 이야기에 공감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위로받고, 오늘을 당차게 살아가는 당신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 : 김유비 | 출판사 : 규장 (135*195)mm 240p 판매가 : 13,000원

팀 켈러의 인생질문

(Encounters with Jesus)



2012년 저자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각 사람의 만남을 주제로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들이었고, 누구보다 이성적이었으며, 대부분이 회의론자였다. 《팀 켈러의 인생 질문》은 모든 사람이 한번쯤은 해 봤을 법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을 통해 찾는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인생의 질문이 많은 이들을 만나셨고, 그때마다 개개인에게 맞는 해답의 답을 주심으로 그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하셨다. 회의론자였던 나다니엘과의 만남, 지성인이었던 니고데모와의 만남, 사마리아 여인, 마르다와 마리아와의 만남으로 가득 차 있다. 이들과 예수님의 만남들을 저자는 명쾌하고 설득력 있게 해석한다. 이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막론하고, 삶의 질문으로 가득 찬 이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 준다.

저자/역자 : 팀 켈러/윤종석 | 출판사 : 도서출판 두란노 (140*206)mm 272p 판매가 : 14,000원

한눈에 읽는 본문이 이끄는 설교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핵심



성실한 연구가 열정 없는 설교를 고치는 치료법이다. 본문이 이끄는 설교를 위한 고된 주해적 연구가 바로 열정이 태어나는 곳이라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설교는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본문에 대한 성실한 주해에 헌신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본문이 당신 마음의 틈으로 스며들어 뜨거워지기 시작한다. 단단한 축수처럼 성경의 말씀이 당신의 영을 감싸고 올라가 마침내 어떤 일을 일으킨다. 불꽃의 감촉이 화염이 되어가듯,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전례로서 볼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성숙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저자/역자 : 로비 갤러티,스티븐 스미스/권호,김대혁,유형재,임도균 | 출판사 : 아가페북스 (150*220)mm 256p 판매가 : 13,000원

하나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

(God Speaks Your Love Language)



이는 것에 머물지 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사랑을 주고받는 것! 하나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독자님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차이를 넘어 그분과의 사랑을 풍성하게 키워가도록 도전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바로 사랑의 언어, 그 어휘를 확장하면 된다! 저자가 거듭 강조하듯 사랑의 언어들은 하나님 사랑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한다. 이는 사랑의 언어를 다양하게 구사하면 할수록 하나님 사랑의 속성과 본질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저자/역자 : 캐리 채프먼/박상은 | 출판사 : 생명의말씀사 (148*210)mm 240p 판매가 : 14,000원

홈페이지: www.ucts.org

2019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ASSEMBLIES OF GOD